

동해가스전, 100만톤 추가 발견!

석유공사, 확인매장량 500만톤 ... 개발효과 12억5000만달러 기대

2003년 말 국내 첫 가스생산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인 동해-1 가스전(B5)의 확인매장량이 500만톤으로 늘어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정 시추 도중에 발견된 가스층에 대해 2003년 1월20일부터 평가 시추 작업을 벌인 결과, 기존 가스층(3개) 밑에서 약 500억입방피트, LNG 환산으로는 100만톤의 추가매장량이 확인됐다.

이에 따라 동해-1 가스전의 매장량은 기존의 40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늘어났다.

추가매장 확인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효과는 당초 10억달러에서 12억5000만달러로 늘어났고 가스개발에 따른 법인세 및 조광료도 기존의 4억달러 선에서 5억3000만달러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

또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동해-1 가스전 북동쪽 15km 해역에 가스 매장가능성이 높은 고래 7구조에 대해 5월 말까지 탐사정1공을 시추하고 탐사시추작업을 벌이기로 했다.

동해-1 가스전은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거리의 수심 150m에 있는 국내 대륙붕에 위치하며, 2003년 12월부터 생산에 착수해 가스공사 주배관망을 통해 울산, 경남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. <조인경 기자>

B5가스층 산출실험(DST) 장면



<Chemical Journal 2003/03/28>